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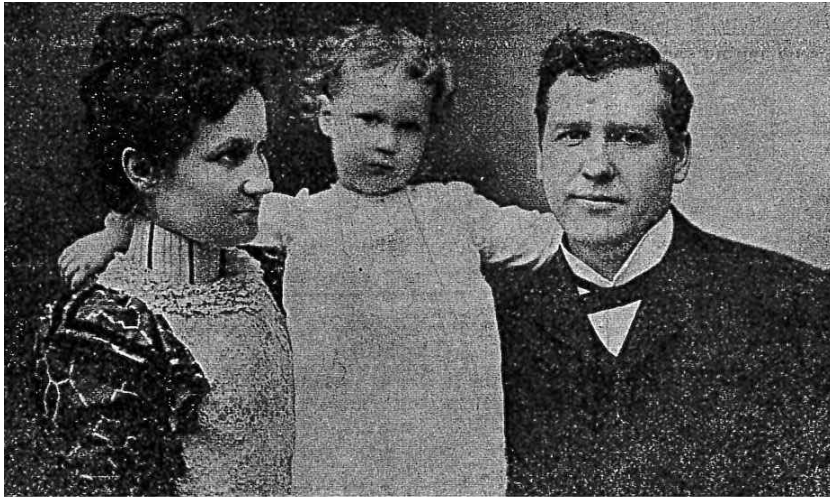
3.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의 한국 선교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윌리엄 커닝햄의 한국선교에 대한 관심(1901-1923)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은 1864년 7월 1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티론 타운십(Tyrone Township)에서 태어났다. 1887년 사범학교 졸업 후 교사로 일하다가 1891년 9월 21일 베다니대학(Bethany College) 2학년에 편입하여 신학을 마쳤으며, 1894년 7월 29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세인트 토마스(St. Thomas)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다.

커닝햄은 베다니대학에 재학 중이던 1893년 여름에 펜실베이니아 주 코넬스빌(Connellsville)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학생설교가로 섬기던 중에 그 교회 청년이었던 에밀리 보이드(Emily Boyd)를 만났고, 1898년 6월 2일 결혼하였다.¹⁾



우측부터 윌리엄, 엘리자,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

1) "A Bit of History," *Tokyo Christian*, September 1930, p. 3; Emily Boyd Cunningham, "Homeward Bound," *Tokyo Christian*, October 1936, pp. 2-4.

커닝햄 부부는 신행여행 기간에 해외 그리스도인 선교회(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1875년 창립)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일본 선교를 제안 받고 준비하였으나 커닝햄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 결과적으로 선교사 불가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커닝햄 부부는 총 4년에 걸쳐 네 차례 더 지원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번번이 불가판정을 받았다. 결국 커닝햄 부부는 독립선교사 신분으로, 작은 인쇄기를 들고, 1901년 9월 12일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차이나(China)호에 승선하여 10월 1일 일본 요코하마(橫濱) 항에 도착하였다. 커닝햄 부부는 도쿄(동경)에서 생계와 선교를 목적으로 영어를 가르쳤고, 귀족대학에 영어강사로 채용되어 생계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사이에 그들은 주택과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일본어도 배웠다. 본국에서 후원이 이뤄지면서부터는 영어강사직을 그만두고 선교사역에 전념하였다. 커닝햄은 도쿄에 도착한지 한 달 만인 1901년 11월 1일, “빛을 보내고(send the light), 진리를



외치며(sound out the truth), 그리스도를 드높이기(uplift the Christ)” 위한 목적으로 월간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 제1호를 발행하였다. 1902년에는 선임 선교사들로부터 선교회를 인수받아 요츠야선교회(Yotsuya Mission)를 설립하였다. 선교회는 도쿄중심부에 가까운 언덕 위에

있었고, 나중에 길 건너편에 일왕의 궁전이 세워졌다.²⁾

커닝햄이 일본에 도착한 1901년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분열되기 이전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Churches of Christ, 아카펠라)가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2) Emily B. and W. D. Cunningham, "Our Fourth Anniversary" and Kate V. Johnson, "Not Sick But Working," *Tokyo Christian*, November 1905, p. 2; "Our Sixteenth Anniversary," *Tokyo Christian*, November 1917, p. 2.

Christ)에서 갈라선 것은 그로부터 5년 후인 1906년이었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이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에서 하나 둘씩 탈퇴하여 독립교회로 갈라서기 시작한 것은 과반세기가 지난 1920년대 이후부터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열린 구성원제와 중앙집권제의 폐해에 실망하여 탈퇴한 독립교회들, 곧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직접후원선교(Direct-Support Missions)의 생계비전담후원(Living Link) 방식이 대안으로 부각되었고, 커닝햄의 요츠야선교회는 이들로부터 직접후원방식의 생계비전담후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요츠야선교회 산하의 60-70여명에 이르는 일본인과 한국인 사역자들이 받았던 사례비가 바로 이 직접후원방식의 생계비전담후원방식이었다.

커닝햄은 요츠야선교회(Yotsuya Mission)가 자리를 잡자 “수확을 기다리는 세계 최고의 황금들판”으로 회자되는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중국 상해에서 개신교 선교일백주년대회(China Centenary Missionary Conference)가 1907년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어서 커닝햄은 M. B. 매든(Madden)과 함께 한국을 거쳐 상해로 갈 계획을 세웠다.³⁾ 1907년은 평양대부흥운동이 절정기에 이른 시점이어서 그들은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선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09년에 요츠야선교회의 일본기독교회에 출석하던 한국인 그리스도인이 서울 YMCA 총무로 재직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신약성서기독교에 의한 침례를 받게 되었다. 이에 고무되어 커닝햄은 자신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미국 성도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였으며,⁴⁾ 그 결실을 1923년에 보게 되었다. 아이오와

3) "Trip to Korea," *Tokyo Christian*, June 1924, p. 2.

4) "Our Sixteenth Anniversary," *Tokyo Christian*, November 1917, p. 2; "Mr. Kwong Choon Kim," *Tokyo Christian*, July 1927, p. 1.

(Iowa) 주에서 한 성도가 한국선교를 위해서 2천 달러의 현금을 약속하였고, 착수금으로 6백 달러를 보냈기 때문이다. 커닝햄은 즉시 한국에 선교기지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그해 9월말에 방한하고자했으나 9월 1일에 동경과 요코하마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를 수습하는 데 수개월이 걸림으로써 방한 계획은 이듬해로 늦춰지게 되었다.⁵⁾

2) 윌리엄 커닝햄의 한국선교 출범과 발전(1924-1936)

지진피해수습이 끝나자 커닝햄은 1924년 3월 중순에 일본기독교회에 출석하는 박제곤을 서울에 보내 선교기지를 물색토록 하였고, 3월 25일에 커닝햄 부부가 직접 방한하여 서울에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웠다.⁶⁾ 그리고 동년 5월에 박제곤을,⁷⁾ 10월에는 부친의 반대로 사임한 박제곤을 대신하여 이원균을 파송하였다. 1927년 중반에 이원균이 중단했던 신학공부를 지속하기 위해서 사임하자, 김광준을 파송하였고, 1929년 3월 26일에는 동경 삼하도 조선인기독교회의 담임목사 박흥순을 포교책임자로 서울에 파송하였다.⁸⁾ 이 무렵 박흥순은 추가로 투입된 이성록, 이동혁과 함께 6개의 선교기지를 운영하여, 그 가운데 한 곳을 1930년 4월 27일 서울 제1교회(요츠야선교회 제13번째 교회)로 조직하였다.⁹⁾ 커닝햄이 서울에 선교기지를 세운지만 6년 만에 거둔 결실이였다.

1931년 9월 하순에는 박흥순을 대신하여 횡빈조선인기독교회의 담임목사 성낙소를 포교책임자로 파송하였다. 비슷한 시기

5) "Tokyo Smitten," *Tokyo Christian*, September-October 1923, p. 4; "Miscellaneous," *Tokyo Christian*, March 1924, pp. 2-3.

6) "Trip to Korea," *Tokyo Christian*, June 1924, p. 2.

7) "Mr. Kwong Choon Kim," *Tokyo Christian*, July 1927, p. 1.

8) "About People" and "Yotsuya Mission Workers," *Tokyo Christian*, November 1929, pp. 1-2.

9)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June 1930, pp. 2-3.

에 요츠야선교회의 존 T. 채이스 선교사가 한국을 시찰하기 위해 다녀갔으며, 일본 와세다대학교(학사)와 상해 성요한대학교(석사)를 졸업한 공립학교 교사였던 김영배가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였다.¹⁰⁾

“성낙소는 1931년(신미년) 9월 하순경에 귀국하여 본가에서 1개월 간 휴양하고, 그 해 11월 15일에 경성에 도착하여



서울조선기독교교회(1924-45)를 섬긴 요츠야선교회의 사역자들
 상좌부터 이원균(1924.10-27, 박재문의 뒤를 이임), 김광훈(1927중반-29.03)
 박흥순(1929.04-31, 1930년 4월 27일에 선교기지에서 교회로 승격시킴),
 이성록(1930.04-31), 성낙소(1931.09-33.05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
 이신범(1933.06-41,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

계동에 거주하며 포교를”¹¹⁾ 시작하였다. 성낙소는 서울 제1교회를 섬기는 한편, 인천 난도(남동)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5번째 교회로,¹²⁾ 담임자로서 매월 세 번씩 주일 오후에 설교를

10) "Tokyo Notes," *Tokyo Christian*, November 1931, p. 1 and December 1931, p. 2;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May 1932, p. 1; "Back from Korea Facts in a Nut Shell," *Tokyo Christian*, December 1936, p. 1.

11) 성낙소,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김종기, 조동호 엮음(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p. 21.

12) "Miscellaneous," *Tokyo Christian*, January 1932, p. 2;

했던 기독교회인천교회(송현기독교교회)를 요즈야선교회의 제16번째 교회로 승격시켰다.¹³⁾ 성낙소는 이들 인천의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난도교회 52명, 송현교회 18명) 침례를 베풀었고 평북 구성에까지¹⁴⁾ 기독교회를 설립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요즈야선교회의 서울 제1교회는 1932년 초까지 경기도 경성부 계동 127번지에 있었다. 성낙소는 이 교회를 송4동 4번지 2층짜리 목조건물로 옮겨 1932년 3월 14일 주일학교(유치원)를 설립하였고,¹⁵⁾ 이 주소지에 1932년 6월 11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교단이름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로, 포교관리자를 성낙소로 기재한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였다.¹⁶⁾ 이후 성낙소는 서울 제1교회와 포교관리사무소위치를 송4동에서 수창동으로,¹⁷⁾ 다시 수창동에서 적선동으로 주소를 옮겼고,¹⁸⁾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가 이인범 목사로 바뀐 이후에는 해방 전까지 아현정 473의 6번지에 있었다. ¹⁹⁾이동이 잦았던 이유는 경성에 요즈야선교회가 소유한 건물이 없었고, 포교관리자의 거주지에 포교관리사무

"Growing," *Tokyo Christian*, June 1932, p. 4.

13)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August 1932, p. 1;

"Miscellaneous," *Tokyo Christian*, June 1933, pp. 1-2.

14) 성낙소,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 *op. cit.*, p. 22.

15) "Korean Kindergarten & Bible School," *Tokyo Christian*, July 1932, p. 1.

16) 국가기록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2년, 관리번호: CJA000479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692호 6면, 소화 7년 8월 26일); 성낙소,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 *op. cit.*, p. 22.

1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857호 6면, 소화 8년 3월 20일).

1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2257호 6면, 소화 9년 7월 19일).

1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030호 2면, 소화 18년 11월 8일).

소를 뒤야했기 때문이다.

비록 커닝햄이 전 총독 사이토 마코토 자작²⁰⁾의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1924년 5월부터 1932년 6월 11일 이전까지 만 8년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에 관련된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다. 신고는 성낙소에 의해서 최초로 이뤄졌고, 1932년 12월에 경기도 경정부 수창동에 ‘기독교회 경성교회’(성낙소)와²¹⁾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기독교회 아현교회’(김문화),²²⁾ 1933년 2월에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에 ‘기독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성낙소)를²³⁾ 위해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되었다. 비록 커닝햄이 1936년 초까지 조선에 12개의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증언하였고, 또 이들 교회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지만, 1924년 5월부터 1936년 1월 10일까지 성낙소가 제출한 이 세 개의 포교소가 합법적인 면에서 보면 전부였다.²⁴⁾ 이 사실을 반영하듯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3년도 제416표, ‘1933년(도)말 교회당 포교소 강의소 현황’에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는 3개로 표기되었다. 또 이들 교회들의 교인수가

20)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자작)은 조선총독부 총독(1919-27, 1929-31) 및 일본정부 수상(1932-1934)을 지낸 인물로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에 종교계를 신설하여 기독교에 우호정책을 펼쳤고, 커닝햄 부부와 절친한 이웃으로서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교계 예양(Comity Agreements)을 들어 타교단의 선교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요츠야선교회가 조선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물이었다.

21)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857호 6면, 소화 8년 3월 20일).

22)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829호 6면, 소화 8년 2월 15일); <조선총독부관보>(제1857호 6면, 소화 8년 3월 20일).

23)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882호 9-10면, 소화 8년 4월 20일).

24) 국가기록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도서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Honest, Unbiased Investigation Welcomed," *Tokyo Christian*, January 1937, p. 2.

1933년 30명; 1934년 73명; 1935년 87명; 1936년 130명; 1937년 97명으로 조사되었다.²⁵⁾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거주)는 1934년 2월 26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기독교회(구 포교자 김문화)에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고,²⁶⁾ 동년 5월 18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경성교회를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서 적선동으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였다.²⁷⁾ 성낙소 목사가 1934년 2월 26일과 5월 18일에 제출한 두 건은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5월 20일 조선지역 포교관리자에서 해임된 후에도 1936년 1월 10일까지 포교관리자의 책임을 합법적으로 계속해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²⁸⁾

한편 이원균이 경성성서학원(성결교)에서 학업을 마치는 동안 경제적 도움을 주었던 요츠야선교회는 학업을 마친 이원균을 1932년 말 혹은 1933년 초에 평북 구성군 방현면에 파송하였고,²⁹⁾ 1933년 6월 5일에는 커닝햄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던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제10교회)의 담임목사 이인범을 성낙소 대신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 선임하여 동년 9월에 파송하였다.³⁰⁾ 이인범은 입국 후 인천 기독교회총현교회를 맡아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계

25) 국사편찬위원회, '4장 부표: 6. 종교교세조사표' <소화 9년 3월 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272-276쪽; '부표: 종교교무(세)조사표(외국인 포교)' <소화 13년 9월 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102-103쪽.

2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2257호 6면, 소화 9년 7월 19일).

27) *Ibid.*

28)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관류)> *op. cit.*;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도서관류)> *op. cit.*

29) "W. K. Lee Says," *Tokyo Christian*, February 1936, p. 3.

30) "A Venture of Faith," *Tokyo Christian*, August 1932, p. 2; William. D. Cunningham, "Enlarged Program for Korea," *Tokyo Christian*, August 1933, p. 1.

출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드려진 것은 1936년 1월 10일이였다. 이인범은 이때 포교관리자주소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로 바꿨다.³¹⁾

이인범은 1936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에 포교관리자사무소를 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를 제출하고,³²⁾ 9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 거주)와 김문화 목사(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 거주)의 포교폐지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제출하였다.³³⁾ 이뿐 아니라, 이인범은 1936년 9월 4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 거주)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³⁴⁾ 동년 12월 23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경기도



제녕함 선교사가 소천 3개월 전 핏치 선교사와 함께 방문했던 인천송현기독교회(1936년 3월)

31)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2752호 12면, 소화 11년 3월 18일).

32)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2883호 6면, 소화 11년 8월 21일).

33)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007호 5면, 소화 12년 1월 26일).

34)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042호 6면, 소화 12년 3월 9일).

인천부 송현리 89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³⁵⁾ 이로써 성낙소와 김문화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인범은 성낙소 이름으로 신고된 것들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세탁시켰다.

1933년 9월에 포교관리자로 부임한 이인범이 1936년 말까지 만 3년간 성낙소 목사가 신고한 3개 교회에 추가시킨 교회는 유정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 단 한 곳뿐이었다. 유정기독교회는 1937년에 경기도 인천부 화정 2정목 14번지로 이전하였다.³⁶⁾ 따라서 커닝햄이 미국에서 선교여행 중이던 1936년 6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1924년 3월 말에 한국 땅에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운지 만 12년 동안 내국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인천에 3개(송현동, 유동, 금곡동), 서울에 3개, 평북 구성군에 2개(방현면, 오봉면), 평북 정주군에 2개(용포동, 근담동), 대류리(황해북도 중화군?)에 1개, 경남 마산에 1개, 총 12개의 교회와 12명의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도쿄 그리스도인>의 보고와는 8개 교회나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은 실제로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늦장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3월호가 한국에 신고된 교회를 11개라고 보고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실제로 포교관리자 이인범은 1937년 한 해 동안 7개 교회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하였다. 이들 교회들은 오봉기독교회(장신주, 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와 방현기독교회(김성산,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259번지),³⁷⁾ 용포동기독교회(류 W. K, 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 용포동 170

35)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143호 9면, 소화 12년 7월 8일).

3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277호 5면, 소화 12년 12월 16일).

3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112호 9-10면, 소화 12년 6월 2일).

번지)와 문인동기독교교회(최성진, 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면 문인동 510번지),³⁸⁾ 금곡정교회(정삼선, 경기도 인천부 금곡정 48번지)³⁹⁾ 그리고 마산(김태희, 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번지)⁴⁰⁾과 서울(이난기, 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29의 4번지)에⁴¹⁾ 세워진 교회들이었다. 커닝햄이 보고한 12개의 교회들 가운데, 정주군의 근담동과 대류리(황해북도 중화군?)의 교회들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 성낙소 목사가 제출한 서울의 2개 교회들 가운데 아현정기독교교회 한 곳만 남았고, <도쿄 그리스도인>(1936년 5월호)에 따르면, 이난기 목사에 의해서 서울에 제2교회가 개척되었다. 평안북도 구성군에 평지동기독교교회와 정주군에 약수포기독교교회가 추가로 개척되었는데, 이들 교회들이 조선총독부에 제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평북 방현기독교회 1935년 4월 21일

3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126호 9면, 소화 12년 6월 18일).

3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178호 10-11면, 소화 12년 8월 18일).

40)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069호 4면, 소화 12년 4월 10일).

41)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019호 5면, 소화 12년 2월 9일).

한편 1935년 3월 20일경에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가족이 그리스도의 교회 최초로 한국에 상주할 선교사로 서울에 도착하였다. 셸리는 목회자로서 요츠야선교회의 후원자였고, 커닝햄이 모집한 한국선교사에 지원하여 파송받기 직전까지 1-2년간 동경 요츠야선교회의 실행위원을 역임하였다. 셸리는 한국에 도착하여 한 달쯤 후인 4월 25일 커닝햄이 1935년 4월 네 번째 방한을⁴²⁾ 마치고 동경에 돌아간 직후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기독교회’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하였는데, 성낙소 목사가 1932년 6월 11일 등록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법적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였다. 총독부가 어떤 연유로 또 한 하나의 ‘기독교회’를 등록시켜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기독교회(남대문통)’으로 표기하였다.⁴³⁾ 셸리가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한 사실로 미뤄볼 때, 성낙소가 이미 1933년 5월 20일에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 신분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이인범 목사가 포교규칙을 위반하고 포교계도 없이, 포교담임자선임계도 없이, 무엇보다도 포교관리자의 법적자격도 없이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는지 혹은 성낙소가 법적으로는 포교관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임되었으므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도 셸리 자신의 포교계를 제출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또 아니면 처음부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는 별도의 선교를 펼칠 계획이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셸리는 이인범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동경 요츠야선교회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실을 5월 25일 미국교회들에 알렸으며, 이로 인해서 커닝햄과 분열하였다.⁴⁴⁾ 윌리엄 D. 커

42) “A visit to Korea,” *Tokyo Christian*, June 1935, p. 3.

43) 국가기록원,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5년, 관리번호: CJA0004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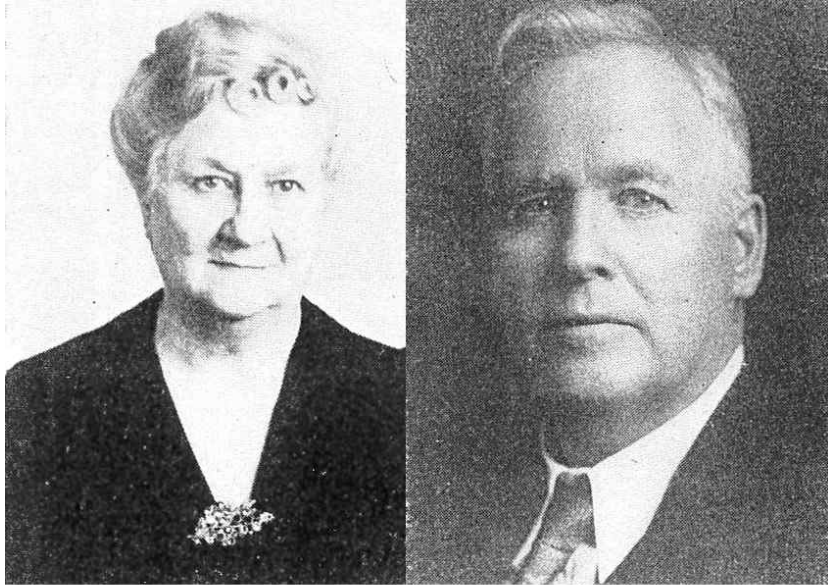
닝햄 선교사는 이미 1934년 말부터 자신이 파면한 존 T. 채이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이 파면에 항의하여 세 명의 미혼여성 선교사들이 사표를 내고 떠난 상황에서 1935-36년 사이에 또 다시 J. 마이클 쉘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입은 상처가 작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모금이 쉽지 않던 때였다. 커닝햄은 아마도 이런 문제들의 수습을 위해서 1936년 4월 24일 동경을 떠나 요코하마에서 배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하였고, 5월 14일부터 선교여정을 시작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임페리얼(Imperial) 카운티와 애리조나 주 피닉스(Phoenix)를 거쳐 콜로라도 주 포트콜린스(Fort Collins)에서 몸의 이상을 느꼈고, 의사의 조언을 받아드려 선교여행을 중단하였으며, 5월 22일 미네소타 주 로체스터(Rochester)에 도착한 뒷날인 5월 23일 커닝햄은 암 진단을 받고 때늦은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6월 24일 저녁 8시 45분, 향년 72세로 일본을 떠난 지 꼭 두 달 만에 소천하였다. 시신은 펜실베이니아 주 코넬스빌(Connellsville)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겨져 장례가 치러졌다. 이로써 윌리엄 D. 커닝햄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몸 바쳤던 모든 지역, 곧 일본에서 한국, 다시 한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미 서부, 미 서부에서 동부까지 마지막 순회를 온전히 다 마치고 그가 처음 선교의 꿈을 품고 사랑하는 아내 에밀리 보이드와 함께 일본을 향해 출발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영면하였다.⁴⁴⁾

또 커닝햄은 동일한 목적으로 미국여행 직전인 1936년 3월 19일부터 요츠야선교회에 갓 부임해온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와 더불어 다섯 번째로 한국의 교회들을 시찰하였는

44)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관류)> *op. cit.*;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도서관류)> *op. cit.*

45) "Illness of Our Director," *Tokyo Christian*, August 1936, pp. 2-3; "Faithful unto Death," *Tokyo Christian*, September 1936, pp. 1-2; "Homeward Bound," *Tokyo Christian*, October 1936, pp. 2-3.

데⁴⁶⁾ 그것이 그의 마지막 방한이 되었다. J. 마이클 셸리 가족도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건강문제로 인해서 동년 10월 28일 미국으로 아주 돌아갔다.⁴⁷⁾



에밀리 보이드와 윌리엄 커닝햄 선교사 부부

3) 태평양전쟁 전후 한국 기독(그리스도의)교회들의 상황

1938년 2월 18일 일본을 떠나 서울에 상주한 토마스 G. 헛치는 입국하자마자 이인범과 함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서울성서훈련원(Seoul Bible Training School)을 개원하여 신학생들을 가르쳤다. 훈련원은 제1교회에서 개원되었으나 곧이어 아현정에 소재한 제1,2교회들에서 가까운 2층 임대교실에서 지속되었다.⁴⁸⁾ 여기서 배출된 목회자들은 김상익(경성부 마장정기독

46) "About People" and "Impressions of the Work in Korea," *Tokyo Christian*, May 1936, pp. 1-3.

47)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류)> *op. cit.*;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January 1936, p. 1.

48) "Into Korea," *Tokyo Christian*, March, 1938, p. 1; "The Hitches

교회),⁴⁹⁾ 임공칠(경성부 대흥정기독교회),⁵⁰⁾ 정삼선(인천부 금곡정기독교회),⁵¹⁾ 임준식(인천부 대화정기독교회)⁵²⁾ 등이었고, 여전도사들은 임화순(서울 아현정 제1교회), 이권신(서울 영등포 제4교회), 평화일(서울 대흥정 제5교회) 등이었다.

이인범은 1938년에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정기독교회(윤낙영, 경기도 경성부 영등포정 256번지), 염리정기독교회(이난기, 경기도 경성부 염리정 3의 53번지)와 마장정기독교회(김상익, 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를,⁵³⁾ 1939년에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덕산정기독교회(김태희, 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제출하였다.⁵⁴⁾ 1941년에는 대화정기독교회(임준식, 경기도 인천부 대화정 109번지),⁵⁵⁾ 신마산기독교회(송기준, 경상남도 마산부 선정 60번지), 구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상남동 269의 1번지), 북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교동 72의 10번지),⁵⁶⁾ 대흥정기독교회(임공칠, 경기도 경성부 대흥정 36의 19번지)⁵⁷⁾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 이인범은 1941년 4월

Go to Korea," *Tokyo Christian*, May 1938, p. 1; Emilie Hitch, "The Bible Training School in Korea," *Tokyo Christian*, December 1938, p. 1.

4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567호 4-6면, 소화 13년 12월 8일).

50) *Christian Standard*, 25 November 193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087호 3면, 소화 15년 9월 3일).

51)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178호 10-11면, 소화 12년 8월 18일).

52)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956호 5-6면, 소화 15년 3월 30일).

53)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567호 4-6면, 소화 13년 12월 8일).

54)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645호 2-3면, 소화 14년 3월 16일).

55)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956호 5-6면, 소화 15년 3월 30일).

5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054호 3면, 소화 15년 7월 26일).

1일 발효된 종교법으로 인해서 요츠야선교회로부터 지원이 완전히 끊긴 1942년 2월 1일에도 현천기독교회(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현천리 23번지)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⁵⁸⁾ 이로써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신고된 ‘조선선교회 기독교회들’은 서울에 5개, 인천에 4개, 경기도 고양에 1개, 평북 구성군에 2개(방현면, 오봉면), 평북 정주군에 2개(용포동, 문인동), 마산(창원)에 3개, 대구에 1개, 총 18개가 되었다. 이와 별개로 존 T. 채이스와 존 J. 힐이 내국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세운 ‘기독교회들’과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동석기와 강명석이 세운 ‘기독교의 교회들’이 추가로 더 있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신고(제출)된 기독교회들이 총 7개, 기독교의 교회들이 총 11개였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로는 1942년 2월 1일까지 총 36개의 교회들이 조선총독부에 제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1년 4월 1일 일제의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된 이후 외국인 선교 및 후원이 중단되었고, 요츠야선교회는 한국 선교를 포기하였으며, 1941년 12월 7일 태평양전쟁이 발발되기 이전에 이미 일본과 한국에 주재한 선교사들이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1940년 11월 16일 한국에 주재한 선교사들이 철수하였고,⁵⁹⁾ 1941년 4월 이후 일본에 주재한 선교사들도 모두 철수하였다. 이 무렵 일제의 박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⁶⁰⁾ 대부

5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087호 3면, 소화 15년 9월 3일).

5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520호 2면, 소화 17년 2월 23일).

59)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출판부, 2007), p. 522; 김승태, <한말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p. 229.

60) 채이스 선교사는 1941년 2월 24일 입국하여 3월말까지 머문 한 달간 박해상황의 심각성을 이문목도(耳聞目睹)하였다. 채이스가 최상현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의하면, 1941년 후반기에 이미 교회들은 폐쇄당하거나 지하로 잠복하였으며, 1942년경 일제는 선교부의 재산을 적산으로 간주하여 몰수하였다. 실제로 일제는 송월동의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몰수하여 세 들어 살고 있던 전향섭에게 1943년에 매도하

분의 교회들은 선교회로부터 1941년 치의 후원금을 한 톨에 받았지만,⁶¹⁾ 후원이 중단된 상태였고, 1941년 12월 7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약 5-6년간 한국과 일본의 교회들은 선교사들로부터 일체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지냈어야 했다.⁶²⁾ 이 기간에 요츠야선교회의 교회들과 기독교회선교부의 교회들은 동방요배, 신사참배,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통합에 반대함으로써 이인범, 김요한, 성낙소, 최상현, 김문화 등의 목회자들이 체포당하여 심하게 매를 맞거나 구금당하였다.

1943년 9월 17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 이인범을 평산 무웅(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으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되었고,⁶³⁾ 평산 무웅에 의해서 1943년 9월 30일 이인범의 포교폐지계가 제출되었으며,⁶⁴⁾ 아현정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의 포교담임자도 이인범에서 송산 의웅으로 바꾸는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⁶⁵⁾ 또 평산 무웅은 1944년 9월 30일 염리정기독교회(경

였다("Korean Christian Mission (in Retrospect)" and "Gospel Headquarters in Seoul," *The Korean Messenger*, May 1946, pp. 3-4.).

61) 요츠야선교회는 이 돈을 '커닝햄 한국기념기금'에서 충당하였고, 기독교회선교부의 채이스는 1941년 2월 24일부터 3월말까지 방한하여 박해상황의 심각성을 이문목도(耳聞目睹)한 후, 힐과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아 1941년 치 후원금을 남겨놓았으며, 송월동 건물을 세놓아 수입을 얻도록 조치하였다.

62) 요츠야선교회는 1941년 4월 이후 한국선교를 포기하였고, 1947년 2월 14일 오웬 스틸 및 동년 6월 14일 에밀리 커닝햄이 일본에 재입국하여 요츠야선교회를 재건하였으나 한국선교를 재건할 의사가 없었다. 반면에 기독교회선교부는 1947년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와 1948년 10월 17일부터 1949년 2월 중순까지 채이스의 두 차례의 단기 방한 및 1949년 2월 18일 힐 선교사 가족 재입국으로 한국선교를 재건하였다.

63)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020호 14면, 소화 18년 10월 26일).

64)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024호 20면, 소화 18년 10월 30일).

65)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030호 2면, 소화 18년 11월

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53번지) 포교담임자도 이난기에서 유지욱으로 바꾸는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⁶⁶⁾ 이로보건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는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폐쇄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회들은 1944년 6월 30일 조선총독부에 포교소폐지계를 제출함으로써 모두 문을 닫았다. 1944년 6월 26일 제3대 포교관리자였던⁶⁷⁾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282번지)의 포교관리자폐지계가 제출되었고⁶⁸⁾ 나흘 뒤인 6월 30일 목회자들의 포교폐지계와⁶⁹⁾ 포교소폐지계가 제출되었다.⁷⁰⁾

남북분단으로 북한의 기독교회들에 대한 소식은 끊겼고, 인천의 화정(유정)기독교회와 금곡정기독교회는 1943년 5월에 송현기독교회와 통합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담임목사 신신근이 소천한 지 8일 만인 1946년 12월 10일 송현기독교회(인천 제1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재건되었다.⁷¹⁾ 요츠야선교회가 고용한 한국인 사역자들의 대다수가 성결교회 출신이었고, 1941년 이후로 요츠야선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졌으며, 요츠야선교회가 많은 후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요츠야선교회와 관계를 맺었던 사역자들 가운데 해방 후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귀했거나 남아 있었던 목회자들은 성

8일).

6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53호 2면, 소화 19년 12월 7일); <조선총독부관보 제5355호 2면(소화 19년 12월 9일).

6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256호 13면, 소화 16년 4월 2일).

6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87호 3면, 소화 20년 1월 23일).

6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52호 5면, 소화 19년 12월 6일).

70)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 소화 19년 10월 10일).

71) 인천송현성결교회 교회연역 (인터넷홈페이지).

낙소, 김문화, 이난기, 윤낙영 뿐이었으며, 교회들로는 이난기의 용산교회, 윤낙영의 아현동교회, 성낙소의 내수정(동석기와 무관한)교회가 있었다. 김문화 목사는 채이스의 도움으로 새로 개척된 돈암정 제2교회를 섬겼고, 다른 이들은 자신이 섬기던 기존의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회선교부’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아현동교회의 윤낙영 목사는 1949년에 선교부(힐 요한)가 만리동에 85달러를 주고 매입해준 구 건물을 수리하여 교회를 새로 개척하였다.⁷²⁾ 반면에 1933년 9월부터 1943년 9월 17일까지만 10년 동안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책임자로 섬겼던 이인범은 장로교회로 이적하여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장로교회에 부임하였으며, 1951년 금산에서 별세하였고,⁷³⁾ 평북 구성군에 파송 받아⁷⁴⁾ 1937년 초 동경 삼하도조선인기독교교회를 맡아



호조야선교부 선교사들

앞줄 좌측부터 슈노버(Ruth Schoonover), 케닝햄(W. D. Cunningham) 부부, 번햄(Farnham) 뒷줄 좌측부터 존 채이스(John T. Chase) 부부, 레몬(Vivian Lemmon),

72) 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hristian Standard*, 25 June 1949, p. 405.

73) 금산제일장로교회 교회연역 (인터넷홈페이지).

74)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July 1933, p. 1; "Opportunity in Korea," *Tokyo Christian*, February 1934, p. 2.

전근하기까지 요츠야선교회에서 가장 큰 방현기독교회를 비롯해서 다수의 교회들과 선교기지들을 세우는 큰 성과를 거뒀던 이원균은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된 1941년 4월 이후 일본에서 귀국하여 장로교단에서 사역하다가 1955년에 침례교단으로 옮겼으며, 1969년 12월 6일 82세로 별세하였다.⁷⁵⁾

4) 한국에서 활동한 요츠야선교회의 선교사들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가족은 1927년 3월 4일 일본에 도착하였다.⁷⁶⁾ 요츠야선교회의 조선인기독교회들에서 자주 설교하였고, 1931년 9월 하순에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시찰하였으며, 한국에 신약성서기독교를 전파할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꼈다. 1934년 10월 커닝햄 선교사로부터 파면당하여⁷⁷⁾ 11월 2일 귀국하였으며,⁷⁸⁾ 1936년 11월 7일 독립선교사로 서울에 도착하였다.⁷⁹⁾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는 요츠야선교회의 후원자로서 실행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던 중 요츠야선교회의 한국 선교사 모집에 지원하여, 1934년 1월 16일부터 한국 입국 준비를 하였다.⁸⁰⁾ 셸리 가족은 1935년 3월 10일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여 18일까지 요츠야선교회의 선교활동을 견학하였다.⁸¹⁾

75) 김갑수, '성직자 양성의 사명자, 이원균 목사' <한국침례교 인물사>(요단출판사, 2007).

76)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April 1927, p. 1.

77)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 (인터넷홈페이지).

78) "Depleted Staff," *Tokyo Christian*, December 1934, p. 3.

79) "The Year 1936 in Retrospect," *The Korean Messenger*, February 1937, pp. 4-5.

80) "Yotsuya Mission Executive Committee," *Tokyo Christian*, January, 1934, p. 2; William D. Cunningham, "Recruits for Korea," *Tokyo Christian*, March 1934, p. 1.

81)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April 1935, p. 1; "Entering Korea," *Tokyo Christian*, May 1935, p. 3.

1935년 3월 20일쯤 한국에 입국하여 24일(주일) 인천 송현기독교회를 방문하였으며, 요츠야선교회(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아닌 별개의 ‘기독교회’ 포교관리자계를 4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인범의 “부정직과 비기독교인다운 행위들,”⁸²⁾ 곧 조선총독부에 포교계, 포교담임자선임계,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불법적인 목회활동, 그로 인해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위기를 맞을 지도 모른다는 점을 5월 25일 미국교회들에게 알림으로 커닝햄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 가족(1935년)
한국에 최초로 파송된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요츠야선교회를 후원하였으며, 선교사로 오기 직전에 실행위원이었다.

과 분열하였다.⁸³⁾ 쉘리 가족은 이 분열과 자신 및 자신의 딸의 건강문제(이질)로 인해서 동년 10월 28일에 아주 귀국하였다. 쉘리는 채이스 선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힘썼으며, 자신의 후원자들에게 채이스를 돕도록 권유하였다.⁸⁴⁾

82) J. 마이클 쉘리 선교사가 1963년 1월 23일 헤롤드 테일러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

83)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관)> *op. cit.*;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도서관)> *op. cit.*

84)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January 1936, p. 1;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p. 117; "John T. Chase to Evangelize in Korea," *Christian Standard*, 29 February 1936, p. 209; "The Chases Will Go to Korea," *Christian Standard*, 28 March 1936, p. 303.



히치 선교사 부부와 딸 애니
MR. & MRS. T. G. Hitch and Miss Annie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는 딸 애니(Annie)와 함께 1936년 3월 3일 호주에서 요츠야선교회에 도착하여 19일부터 커닝햄과 함께 조선선교회 기독교회들을 시찰하였다.⁸⁵⁾ 1937년 3월 2일 부인 E. 히치와 딸 앨리스(Alice)가 일본에 합류하였고, 1938년 2월 18일 토마스, 3월 24일 부인 E.와 딸 애니가 한국에 상주하기 위해 일본을 출국하였다.⁸⁶⁾ 동년에 또 다른 딸 에밀리(Emilie)가 호주를 떠나 서울에 도착하였다. 서울에 모

인 히치 가족은 동년에 서울 제1교회(아현정)에서 담임목사 이인범과 함께 성서훈련원(Bible Training School)을 개교한 후, 장소를 아현정 소재의 건물 2층으로 옮겼다.⁸⁷⁾

토마스(영국인)와 부인 E.(독일출생) 히치는 티베트 국경지대와 일본에서 오랜 기간 사역한 베테랑 선교사들이었으나 토마스가 티베트에서 두 아들을 잃고 신경쇠약증에 걸린 상태였다. 이후 히치 가족은 요츠야선교회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8년간 딸들의 교육을 위해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다.⁸⁸⁾ 히치는 요츠야선교회에 부임하여 1937년까지 <도쿄 그리스도인>의 편집과

85)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April 1936, p. 1.

86) "Into Korea," *Tokyo Christian*, March, 1938, p. 1; "The Hitches Go to Korea," *Tokyo Christian*, May 1938, p. 1.

87) Emilie Hitch, "The Bible Training School in Korea," *Tokyo Christian*, December 1938, p. 1.

88) "Miscellaneous," *Tokyo Christian*, January 1937, p. 4; "Into Korea," *Tokyo Christian*, March, 1938, p. 1.

임시 회계를 맡아보면서 한국 선교지를 감독하기 위해 일 년에 1-2차례씩 시찰하였으며, 1938년 2월부터 한국에 상주하였으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쇠약증이 재발하자 1939년 8월말 가족과 함께 호주로 돌아갔다.⁸⁹⁾



오웬과 셜리 스틸(Owen & Shirley Still) 선교사 부부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선교를 감독했던 스틸은 부인의 건강
악화로 1950년 5월 3일 미국 하와이로 사별지를 옮겼다.

오웬 스틸(Owen Still) 가족은 1937년 10월 24일 일본 요츠야선교회에 도착하였고,⁹⁰⁾ 헛치 가족이 한국을 떠난 1939년 9월부터 1941년 3월까지 조선선교회 기독교회들을 시찰하였다. 오웬 스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 복귀하여 요츠야선교회의 재건에 힘썼으나 부인 셜리의 건강 악화로 1949년 5월경에 요츠야선교회를 사임하였

다.⁹¹⁾ 스틸은 조선선교회 기독교회들을 시찰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첫째, 열정, 온 맘 찬양, 진실한 기도, 박력 있는 설교가 인상적이었다. 둘째, 친절과 환대에 놀랐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높은 것에 놀랐다. 돈을 요구할까봐 걱정을 안고 한국에 갔지만, 급여를 올려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뭄과 가난에 찌들어 있었지만, 주님의 일에 용기 있게 나섰다. 넷째, 전도의 영이 충만하였다. 한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전도에 힘썼다. 그들은 선교기지를 열어 주일학교를 시작하면 곧이어 교회로 발전시켰다.⁹²⁾

89) "Workers Leaving," *Tokyo Christian*, September 1939, p. 2.

90) *Tokyo Christian*, December 1937, p. 1.

91) Eva Green, "Best Wishes to Stills," *Tokyo Christian*, May-June 1950, p. 4.

92) "Things I Like About Korea," *Tokyo Christian*, January 1940, p.

5) 요츠야선교회의 한국기독교교회들이 살아남지 못한 이유들

첫째, 요츠야선교회는 세계경제대공황으로 후원금이 크게 감소하여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내내 재정부족의 어려움을 겪었다. 선교회 소속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모두 급여를 받는 고용인들이었다. 게다가 새로운 종교법과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들의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였다. 신념이나 교리 또는 박해보다 더 무거운 짐은 가난과 배고픔이었다.

둘째, 커닝햄 선교사는 신학교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목회자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요츠야선교회의 내국인 사역자들의 상당수는 성결교 출신의 목회자들이었다. 커닝햄은 이들 사역자들이 신약성서기독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기를 바랐고 교육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평북 구성군 오봉기독교회의 방(H. C. Pang) 목사 같은 분은 신약성서가 동일하다고 집요하게 고집함으로써 요츠야선교회가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또 심천조선인기독교회의 채호 전도자는 신약성서기독교를 잘 알지 못한 타 교단에서 유입된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기독교회들에서는 침례와 주의 만찬의 집례를 목사뿐 아니라 평신들도 할 수 있었는데, 채호는 목사가 아닌 평신도 전도자였다.

셋째, 요츠야선교회는 일본에서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된 1941년 4월 1일부터 한국선교를 포기하였고, 많은 후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다. 남북분단으로 북한의 기독교회들에 대한 소식은 끊겼고, 인천의 화정(유정)기독교회와 금곡정기독교회는 1943년 5월에 송현기독교회와 통합하였다. 자체 건물을 소유했던 송현기독교회는 해방 후 담임목사 신신근이 소천한 지 8일 만인 1946년 12월 10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재건되었다.⁹³⁾

넷째, 일제의 탄압과 박해로 인해서 많은 내국인 사역자들이 매를 맞거나 투옥되었으며, 상당수의 교회들이 폐쇄당하거나 흩어졌다. 1941년 6월 24일 일본에서 ‘일본기독교단’이 창립되고, 전교회가 강제로 통합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45년 7월 19일에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이 창립되고,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등이 여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교단통합, 신사참배, 기미가요합창, 동방요배(궁성요배), 전사장병묵도, 황국신민서사낭독, 천황폐하만세삼창의 강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⁹⁴⁾ 기독교회들(조선선교회 및 기독교회선교부)에서는 이인범, 김요한, 성낙소, 최상현, 김문화 등이 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매를 맞고 투옥되기도 하였다. 성낙소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1940년 가을에 조선총독부가 ‘일본기독교교회조선교단’이라는 명칭으로 기독교의 모든 교파를 통합하기 위해서 각 교파의 대표들을 피어선 성경신학교내 장로교 총회장 사무실에 모이게 하였고, 기독교회선교부에서도 김문화, 최상현, 성낙소가 참석하였으나 가입에 반대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모진 매를 맞았다.⁹⁵⁾ 결과적으로 기독교회선교부에 소속된 포교관리자와 포교자들 및 포교소들은 1944년 6월 30일까지 모두 폐지 및 폐쇄 당하였다.⁹⁶⁾

다섯째,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요츠야선교회)는 포교관리자가 1944년 9월 30일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아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폐쇄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소속 목회자들 가운데 해방 후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귀했거나 남아 있었던 목회자들은 성낙소(내수정교회), 김문화, 이

93) 인천송현성결교회 교회연역 (인터넷홈페이지).

94) "Mission News," *Tokyo Christian*, September 1940, p. 1.

95) 성낙소, ‘제9장 대동아 전쟁과 교회 박해,’ <기독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pp. 31-34.

96)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in Retrospect)," *The Korean Messenger*, May 1946, pp. 2-3;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52호 5면, 소화 19년 12월 6일); <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 소화 19년 10월 10일).

난기(용산교회), 윤낙영(아현동교회) 뿐이었다. 포교책임자로 섬겼던 이인범은 장로교회로 이적하여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장로교회에 부임하였다가 1951년 금산에서 별세하였고,⁹⁷⁾ 이원균은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된 1941년 4월 이후 일본에서 귀국하여 장로교단에서 사역하다가 1955년에 침례교단으로 옮겼으며, 1969년 12월 6일 82세로 별세하였다.⁹⁸⁾

97) 금산제일장로교회 교회연역 (인터넷홈페이지).

98) 김갑수, '성직자 양성의 사명자, 이원균 목사,' *op. cit.*